

[나의 책, 나의 학문]

나의 책, 나의 학문

장태진

조선대학교 국문학과 명예 교수

(1) 국어국문학의 길을 택하고

내가 국어국문학에 뜻을 두게 된 동기에 대해 먼저 이야기한다면 육이오 전쟁에 참전 후 복학하여 청구대학에서 듣게 된 김사엽 선생님의 속담론(1953) 강좌가 될 것이다. 그 강의의 기말 시험으로 “현대 사회상을 반영한 속담의 군상”이라는 제목의 기십 매 분량의 과제를 제출하였다. 예를 들면 “병신 자식 효자 노릇 한다”의 기존 속담을 당시의 사회상에서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걱정하는 부모의 모습과 관련지어 기술하는 식이었다. 그리고 새로이 수집한 속담도 몇 개 포함하여 풀이하였다. 이것이 선생님의 마음에 드셨는지 특별히 강의 시간에 거명하면서 칭찬하여 주셨다. 선생님께서 후한 학점을 주신 것은 물론이었고, 이 원고는 뒤에 학과의 잡지 “청구 문학”에 수록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 책은 아쉽게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영남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오늘날 국어학 분야에서도 사회 언어학에 전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처음 제출한 과제와 학문적 관심이 일치하는 것은 너무나 우연한 일이다.

(2) 국어학에 뜻을 굳히다

50년대 초, 내가 다녔던 청구대학뿐만 아니라 대구에 있는 다른 대학의 국어학 연구자들에게 끼친 양주동 선생님의 영향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무렵 우리들과 함께 다른 대학의 교수님들도 선생님의 강의를 청강하는 분들이 많았다. 『조선고가연구(朝鮮古歌研究)』, 『여요전주(麗謠箋注)』의 강의를 비롯하여 고전 강독 시간에는 선생님의 『국문학교전독본』을 교재로 하여 그 명강의에 접할 수 있었다. 실제 우리들은 선생님의 강의를 “국어학”의 전부처럼 생각하였고, 그 강의는 국어사의 자료에 대한 우리 지식의 기초가 되었다.

나는 선생님의 『조선고가연구(朝鮮古歌研究)』에서 한자의 음훈을 기초로 고대 국어의 “국명, 지명, 인명”등을 연구하는 방법론에 한 때 심취한 적이 있었다. 그 결과 “어원론고-단군 왕검에 대한 고찰¹⁾”이라는 글을 대학 신문(청구대학 신문, 1954)에 연재하였는데, 여기에서 ‘단(檀)’을 ‘*tan(谷)’으로 추정하였다. 삼국사기의 “檀溪縣本高句麗水谷城縣…，水谷城縣-云買旦忽…”등의 지명을 인용하고, “君, 王, 儉”을 같은 단어로 보았다. 그리고 “先是朝鮮遺民分居山谷之間…”과 같은 삼국사기의 출전도 예증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다분히 만용의 소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럼에도 나에게서는 이것에 대치(代置)할 견해가 없다.

훗날의 이야기이지만 조운제 선생님께서 “학자는 자기 글에 책임을 져야 하고, 잘못된 견해는 학계에 혼란을 끼친다”고 훈계하여 주신 말씀을 잊을 수 없다. 이 말씀은 위의 글에도 적용될지 모른다. 아무튼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서 국어학은 매력있는 학문으로 내게 다가왔고, 한편으로 더욱 어려운 학문이라고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1) 장태진(1954), “어원론고(1·2)-단군왕검에 대한 고찰”, 청구대학 신문, 제2호·제3호, 청구대학, 대구.

(3) 국어학사 자료 『음경(音經)』

『음경(音經)』²⁾은 국어학사의 자료인데 조선말에 훈민정음을 연구한 권정선(權靖善 1848-1923)의 원고본이다. 특히 이 책과는 내 나름의 사연이 얽혀 있다. 청구대학 최해청 학장님의 지시와 위암(韋庵) 장지연(張志淵) 선생 댁의 요청이 있어, 1953년 11월 중순 어느 날 선생의 유서와 자료들을 정리하게 되었다. 여기저기 흩어진 『황성일보』의 신문철(新聞綴)을 맞추고 선생이 남기신 편지들도 모으는 일로서 먼지더미 속에서 꼬박 3일간의 작업이었다. 결국, 피로가 겹치고 코피가 터졌다.

그러나 『음경』으로 쓰인 원고본을 하나 발견하는 순간 그 동안의 피로는 곧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희열을 느꼈다. 그 원고본이 국어학 자료임을 직감하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흥분을 멈추고 조용히 위암댁 아주머님께 말씀 드려 그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대학에서 김사엽 선생님을 뵙고, 이 원고본의 평가를 청하였다.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선생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만 감히 선생님께 재촉할 처지도 아니었다.

나는 교사직을 사직하고, 상경하여 다시 동국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석사 논문을 구상하게 될 무렵 문득 『음경』에 대한 연구를 떠올리게 되었다. 나는 궁색한 주머니 사정을 무릅쓰고 야간 3등 열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갔다. 아침도 거른 채, 시간을 맞추어 김사엽 선생님 댁을 방문하여 ‘음경 연구’에 대한 내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는 기왕에 당신에게 맡긴 것이니 음경 연구는 유 교수에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하시며, 즉석에서 거절하지 않으니? 나는 망연자실(茫然自失), 야속한 마음까지 들었다.

얼마 후 『음경』은 유인본으로 나왔다. 그런데 보내온 책을 살펴보니, 오자 149자, 탈자 3자, 오입자 1자, 이행자 17자 등으로 모두 170자가 정오표 없이 간행되었다. 이쯤되면 유인본의 자료적 가치는 상실한 상태였다.

2) 청구대학 국어국문학회(1957), 音經(유인본), 대구, p. 109.

그러나 나는 실망하지 않고, 저자의 편지에 있는 주소를 가지고 음경의 저자 권정선(權靖善)의 유족을 찾아 추가 자료의 수집에 나섰다. 1957년 10월 하순 어느 날이었다. 당시는 아직 한강 철교가 복구되지 않아서 한강의 부교(浮橋)를 도보로 건너, 충남 공주행 버스를 탔다. 공주에서 내려 정안면의 두메 마을, 한소리[大山里]를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흥살이를 하고 있는 저자의 장손 권홍상 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그렇게 곤궁한 처지에서도 작은 궤 속에 조부의 유품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고, 필자에게 조부의 관련 자료들을 서슴없이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날밤 늦도록 필자는 저자의 인적 상황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하게 되었고, 훗날 이 원고는 자유문학³⁾에 발표되었다.

그런데 그 후 저자의 유가족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가 하면, 위암(韋庵) 선생의 손녀 장남수 씨가 『음경』의 원고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저자의 유족과 위암 선생 유족 사이에서, 그 처리를 놓고 고민하였다. 노산(鷺山) 이은상(李殷相) 선생님 말씀은 시효가 지났으니 원고본 소유권은 위암 맥에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원고본과 관련 자료들을 사진관에 위촉하여 필름에 수록하였다. 그리고 원고본과 자료는 다시 장남수 씨에게 돌려주었다. 훗날 필름을 현상하여 김윤경, 허웅 두 선생님께 드린 일이 있지만, 결국 고영근 교수님이 이 필름을 『역대한국문법대계』에 수록함으로써 『음경』의 사연은 일단 마무리가 되었다.

어느 날 허웅 선생님께서 중요한 국어학 논문을 잡지에 발표함은 잘못이다라는 충고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 원고를 다시 정리하여 무애(無涯) 선생님 고희(古稀) 기념논문집⁴⁾에 발표하였다.

3) 장태진(1961), 權靖善과 音經-국어음운학사의 자료-, 자유문학 제46호, 서울, p. 149~151.

4) 장태진(1973), 음경과 권정선, -그 저술시기를 중심으로-, 양주동박사교회기념논문집, 서울.

(4) 방점 연구에서 모음의 음장 연구까지

내가 중세 국어의 방점(傍點)에 대하여 처음 접한 것은 남광우 선생님의 “국어학 특강”에서 주제가 된 ‘방점 연구’였다. 실제로 이 강의는 처음부터 큰 고역이었다. 강의 내내 시종일관 칠판의 기록을 베끼는 일이 거의 전부였다. ‘방점 연구’는 선생님의 대학 졸업 논문의 주제로 알고 있는데, 강의 시간 당 베끼는 분량은 거의 4, 5매에 달하였다. 그런데 내용 설명은 간단히 지나가거나 생략되기 일쑤였다. 잔뜩 공책에 적기는 했지만 별로 이해되지는 않았다. 그 강의의 종강 후에도 누구 하나 아는 것 같지 않았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또한 음운론이 아닌가 싶다.

음운론 분야에서 내가 제일 먼저 접한 책은 하토리 교수의 『음성학』(3판, 1954)이며, 뒤에 Pike의 『Phonetics』(6판, 1958), 허웅의 『국어음운론』(초판, 1958), Johnes의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8판 1957) 등의 순이다. 대학원 진학 후, 이희승 선생님의 국어학 강좌에서 “경상도 방언의 Click에 대하여”를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하토리 교수의 『음성학』을 공부한 덕택이라 하겠다. 몇 년 전 일이다. 어느 날 우메다 교수님으로부터 하토리 박사님 별세의 비보가 왔다. 나는 고인의 책을 생각하면서 조전을 보냈다.

내 최초 논문으로 드는 ‘방점 연구’⁵⁾는 중세 국어의 방점 표기법을 추구하여, 그 역점의 이동 체계에서 운율(prosody)의 패턴과 운소 체계를 추정하려는 작업이었다. 이어서 중세 국어의 문헌에서 방점 표기 체계의 변천⁶⁾이 있었음을 제안하였다. 한편, 이들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중국의 사성(四聲)에 대한 음운론적 이해⁷⁾에도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탐구는 곧 현대 국어에 있어서 모음 음장(音長)에 대한 연구⁸⁾로 이어진다. 제2회 전국 국어

5) 장태진(1958), 방점의 기능, 어문학 3, pp. 124~148, 대구.

6) 장태진(1961), 15세기 문헌 중에서 발견되는 방점 표기 체계의 변천, 국어국문학 제 23호, 서울.

7) 장태진(1962), 방점의 연구, 국어국문학 논문집 제3집, 동국대, 서울.

8) 장태진(1960), 모음 장단의 대립에 관하여—표준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22, 서울.

국문학 연구 발표 대회에 참가하여 모음의 길이를 현대 국어의 음운, 특히 운소(韻素)로 파악하면서 모라(mora)에 대한 이론으로 접근하였다.

이 논문은⁹⁾ 대학의 교수 임용 논문으로 제출되었다. 당시는 5·16으로 대학에 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문교부 주관의 논문 심사를 거쳐야 했다. 그리고 그 논문은 반드시 학술지에 게재되어야 하는데 지면이 없었다. 때마침 ‘한국어문학회’의 회장이신 강복수 선생님의 도움이 있어서 『호남 특집호』로 편집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전남·북 3개 대학의 6편 논문이 수록되었다. 이 논문들은 한국언어문학회 창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5) 은어(隱語) 연구에서 변말 사전의 간행까지

내가 변말인 은어 연구에 접한 것은 1953년의 어느 날, 남광우 선생님의 강좌 시간에 학우들과 함께 구입한 초기의 『국어국문학』인데, 여기에 김민수 선생님의 은어 연구에 관한 논문¹⁰⁾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62년 3월 광주로 내려가 조선대학교에 부임한 이후부터인데, 당시 3학년 학생이던 서주열 군이 은어 수집을 제안하고서였다.

그때 벌써 은어를 주제로 저명 교수님들의 논문 몇 편이 속출하였지만 당시의 은어 열풍은 대단한 것이었다. 모신문(某新聞)에 은어가 연재되는가 하면, 모대학(某大學) 신문에는 유행어란으로 상당수 자료가 소개되었다. 더욱이 신문 잡지에는 은어 기고가 판을 치고 있었으며, 모여고(某女高)에 잠시 실습 나간 교생이 수업 시간에 엉뚱하게 은어 소개에 열을 올리던 일까지 있었다. 아무튼 당시에는 은어 열풍이 불었던 것이다.

내가 재직하던 국문학과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서로 제의하고, 서로 호응하여 몇 학생들은 스스로 새로운 자료들을 수집하여 오기도 하였다. 학과

9) 장태진(1963), 국어의 음장과 MORA - 현대의 음운 설정을 위한 연구-, 어문학 9, 호남특집호, 대구.

10) 김민수(1953), 은어(변말)시고, 국어국문학 6, 부산.

국어학 교실에서 각 교도소에 어휘 대조를 의뢰한 바도 있었다. 방과 후 학생들은 늦게까지 카드 작성을 도와주었다. 당시에는 3학년 학생들이 중심이었지만 오늘날 그들 중 몇 분은 대학에 재직하고 있고, 곧 정년이라는 소식이다. 이렇게 엮은 것이 『한국은어사전』이었다. 훗날 학회 모임에서 최현배 선생님이 언제 그렇게 모았느냐고 하셨다. 나는 그저 머뭇거렸다.

초기의 이 작은 책자는 훗날 일본에 체류할 때 식민지 초기 우리 변말을 함께 수록하여 엮은 교토대학장본(京都大學藏本) 『은어집람(隱語輯覽)』을 얻어 본 행운으로 마침내 재생할 수 있었다.¹¹⁾ 여기 『국어변말사전』이 탄생하지만 그 작업의 완성은 정년 후에까지 기다려야 했다. 나로서는 무려 36년간의 대장정이었다. 지난 해 겨울, “동숭학술상(東崇學術賞, 공로상)을 받았다. 상을 주신 김민수 선생님의 논문은 20세기 중반 53년이고, 상을 받은 본인의 책은 같은 세기말 98년 간행이다. 그 사이 49년간 함께 늙었으니 모두 성성한 백발이다.

(6) 국어 사회언어학의 구축을 위하여

국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는 50년대 변말 연구에서 강조되어 왔다. 먼저 김민수 선생님은 프랑스의 사회학자 Comte, A.와 언어학자 Meillet, A.의 견해와 함께 기쿠자와가 제안한 위상론을 소개하면서 변말 연구의 방법론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승녕 선생님은 Dauzat, A.를 비롯한 프랑스 사회언어학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개요를 소개하면서 여기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셨다. 물론 이것이 국어 사회언어학의 형성 과정에 고려할 과제이기는 하지만 필자의 경우 영국계 Partridge, E.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¹²⁾ 따라서 초기의 국어 사회언어학은 변말 연구와 긴밀히 관련되었다.

나는 장기간 변말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어 연구에 전념하면서, 한편으로 국어의 사회언어학적 과제에 관심의 초점을 두게 되었다. 그것이 곧 국

11) 장태진(1992), 『隱語輯覽』의 우리 변말에 대하여, 동방학지 제76집, 연세대, 서울.

12) 장태진(1971), 은어의 개념, 장암 지현영 선생 회갑기념논총 p. 1282, 대전.

가어¹³⁾와 표준말¹⁴⁾ 또는 세대 변종¹⁵⁾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는 것이라 하겠다. 그 동안 발표한 논문들을 엮은 논총¹⁶⁾과 단행본¹⁷⁾을 들어 두지만 국어학계 협찬의 편지¹⁸⁾를 낼 수 있었음을 다시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여기에 국어학계의 지력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국어 사회언어학이 구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하면서 아울러 즐거의 근간을 예고하는 바이다.

-
- 13) 장태진(1971), 국가어의 개념-사회언어학적 고찰, 한글학회 50돌 기념논문집, pp. 492, 서울.
 - 14) 장태진(1972), 표준어에 대한 언어사회학적 고찰, 상산 이재수 박사 환력기념논문집, p. 516, 대구.
 - 15) 장태진(1977), 세대 집단의 언어 변이와 그 속도, 이승녕 선생 고회기념 국어국문학 논총, p. 708, 서울.
 - 16) 장태진(1988), 국어사회언어학 연구, p. 529, 서울.
 - 17) 장태진(1987), 언어계획 기관의 연구, p. 238, 서울.
 - 18) 장태진 편지(1995), 국어사회언어학논총, p. 820, 서울.